

지역사회 품속에서 성장하는 젊고 따뜻한 농장 홍성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홍성군 장곡면도 여느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1960년대 장곡면은 약 1만 3천여명이 살던 제법 북적대는 지역이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현재 주민은 3천명 남짓에 불과하고 면에 하나밖에 없는 장곡초등학교 학생 수는 현재 46명으로 면 전체 주민의 2%도 채 되지 않는다. 학생 수가 1천 3백명을 넘었던 1960년대와 비교하면 동네에 아이를 둔 청·장년층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는지 알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니, 지역에서 농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더해졌다.

이런 장곡면에 두 농장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쇠락하던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있다.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젊은협업농장’과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재활을 돕는 ‘행복농장’이 그 주인공이다. 두 농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장곡면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고 하여, 장곡면을 찾았다.



젊은협업농장: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을 육성하자

우리나라 청년은 농사를 직업으로 삼기 힘들다. 상당수의 청년은 어릴 적 농촌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농사일이 생소할 뿐 아니라 창농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창농을 했더라도 농업 소득만으로는 살림을 꾸려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부모의 농지를 물려받은 청년들은 형편이 낫지만,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농업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예전보다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두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농촌에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은 농촌과 청년의 결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홍성군에는 60년 가까이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쳐 온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하 풀무학교)’가 있다. 학생 대부분이 지역 농민의 자녀였던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와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농민이 되는 졸업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에 농사를 시작할 기반이 없고, 지역에 연고가 없어 곧바로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협업농장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청년들이 파종부터 판매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젊은협업농장을 이끌고 있는 정민철 대표는 풀무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2012년에 그만두고 졸업생 2명과 ‘세남자농장’이란 이름으로 농장을 시작하였다. 세 사람이 농업으로 지역에서 살아남자는 당찬 포부로 일을 벌인것이다. 정민철 대표는 농장이 농업 생산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농지 300평에 농사를 지으면 농민이 되는데, 300평에서 나오는 농업 수입은 뻔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농업을 하면서도 농민으로 규정되는 실정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의심했고, 우리가 고민한 방향은 최소 생활비 50%를 농업이 차지하도록 하자는 거였죠. 나머지 50%는 농외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이고요. 그래야 농업을 운영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시작한 세 명이 최소 소득 3,000만원을 올려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 논 8,000평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논 8,000평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젊은협업농장이 장곡면에 자리를 잡고 논 3,000평을 임차하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논농사로의 진입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밭농사를 위한 농지도 1,000평은 확보해야 되는데, 농지와 농기계 임차가 문제되었어요. 당시 우리가 모은 투자 비용은 전부 1,000만원에 불과했는데, 이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농업은 시설하우스 밖에 없었어요. 200평 비닐하우스 1동을 일 년 동안 빌리는 데 임차료가 1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은 다양한 시설하우스 작물 중에 세 명이 끊임없이 일할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는지였어요. 세 명에서 미니 토마토를 재배하면 미니 토마토를 생산할 수 없는 한 겨울에는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놀고 할 수 있는 작물이 뭐냐? 그래서 찾으니깐 농민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일반 농가에서는 진짜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작목인 싹 채소를 하게 된 것이죠.”



2012년 ‘세남자농장’은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시설하우스 1동을 임차하여 싹 채소 10종류를 생산하면서 시작하였다. 싹 채소 재배 경험이 없다보니 수확에 자주 실패하여 순수익이 거의 없었다. 정상적인 농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2012년 말 장곡면 도산리 이장으로부터 시설하우스 3동을 추가로 빌리면서 장곡면에 기반을 마련했다. 1년 동안의 실패가 값진 경험이 되어 시설하우스 4동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동네 분들이 농사짓고 싶어하는 지역 젊은이들을 연결해주어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수도 늘어났다.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은 얼마 동안 일하던 상관없이 모두 받아주면서 청년 10명 이상이 함께 일하는 농장이 되었다.

2013년에는 기존에 임차한 시설하우스 4동 바로 옆 이장님의 땅을 추가로 빌려 시설하우스 4동을 신축하였다. 신축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보조하였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었다. 당시 농장 형편으로는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에 우여곡절 끝에 뜻을 같이하는 지역 주민 42명이 4,200만 원을 출자하여 자부담 부분을 메꾸고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때부터 ‘세남자농장’은 ‘젊은협업농장’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청년 농민을 육성하는 농장의 체계를 갖추었다.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신축한 시설하우스 4동을 협동조합이 소유하도록 하였다. 조합원 중 시설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을



탈퇴하면,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장에서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만 임여를 배당하도록 했다. 이는 애초에 농장이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젊은협업농장은 영리 목적으로 출발한 기업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청년 농민을 길러내자는 사회적인 목표에 합의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수익은 생산에 참여한 조합원에게만 노동의 대가로 배당한다.

그리고 젊은협업농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협동조합 대표와 이사진을 구성하였다. 풀무학교 이사장,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도산리 이장 등 3명이 외부 이사로 참여하고 젊은협업농장의 생산자 2명이 이사진에 포함되었다. 풀무학교는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홍성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젊은협업 농장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약 70%를 사들였다. 도산리 이장은 젊은협업농장 초창기 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젊은협업농장의 기반이 되는 땅과 시설하우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사진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생산 참여자들이 협동조합을 독단적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농장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도적으로 외부 이사진 수를 생산자 이사보다 많이 구성하였다.

청년 농민을 키우는 농장 운영 모델도 구체화하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청년이 혼자 농촌에서 농장을 시작하기에는 위험이 크다. 그러니 농장에서 1~2년 동안 농사를 배운 뒤 독립하여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방향이라고 보았다. 농장에 온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배워 독립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협업하여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농장'이란 의미로 이름을 젊은협업농장이라고 지었다. 농장 운영진을 제외하고 2013년에 농장에 있던 청년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는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독립하여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젊은협업농장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독립하여 농장을 차리려면 향후 정착할 지역의 농업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용한 지역별 농업





정보는 사적 인맥을 통해 공유되는데, 농장에서 일하다보면 그런 네트워크에 속하기가 쉽지 않다. 독립하여 정착할 때 지역의 농민이나 농업 관련 기관, 지역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젊은협업농장은 2013년 하반기에 '장곡 배우기'란 지역 학습 모임을 기획하였다. 홍성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과 교류하고, 지역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스스로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는 기회가 되었다.

젊은협업농장 초창기에 농장의 주력 참여자는 30대 청년들이었다. 대부분 1~2년 간 농장에서 농업을 배우고 자신의 농장을 차리기 위해 독립했다. 농장은 이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대부분 잘 정착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농장에 20대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젊은협업농장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다. 20대 청년들은 30대와 달랐다. 미래에 대한 구상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과 농촌에 관심이 있어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농민의 삶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청년들이 농업 활동 외에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돕는 것도 농장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시 기획한 사업이

청년 2명의 이름을 딴 '해강산프로젝트'다.

2015년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청년 세대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누릴 수 없었던 다양한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추진하였다. 홍성군의 여러 조직이 협력하여, 장곡면과 흥동면에서 철학, 문학, 마을 기록, 사진, 한시와 논어 읽기 등 다양한 강좌들을 열었다. 2017년에 지역에서 열리던 다양한 강좌들을 엮어 '평민지역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인 청년배움터의 장을 마련했다. '유기농업', '역사인문학', '기초화학', '유기재배의 기초와 실제', '지역의 이해' 등 7개 강좌가 매주 1회 진행된다. 젊은협업농장의 청년들은 하루 종일 농사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오후 4시가 넘으면 손에 묻은 흙을 씻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육 강좌를 수강한다.

젊은협업농장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농장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또다른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젊은협업농장은 홀로 모든 활동을 소화하면서 농장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민철 대표는 농업 경영체의 전체 투자 규모 중 농업에 대한 투자가 절반을 넘고, 전체 수입 중 농업을 통한 수입이 절반을 넘어야 농장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농장 구성원 중 20대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 교육에 관심을 많이 쏟게 되는 현상이 늘자 젊은협업농장은 농업생산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교육활동도 지속할 방안을 고민했다. 교육활동을 지역 내의 다른 조직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조직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이 조합은 젊은협업농장과 별개로 농업 교육 현장실습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장곡면으로 찾아오는 청년을 농장과 연결하여, 농업 교육에 대한 선택지를 다양화하려는 의도이다. 조합에는 젊은협업농장을 포함하여 지역의 9개 농장이 참여하고 있고, 9개 농장과 청년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다양한 행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학습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2017년부터 시작한 평민지역학교는 젊은협업농장 외에 여러 지역사회 조직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흥동면의 '풀무교육연구소'와 올해 창립한 '마을학회 일소공도' 등 학습 조직이 젊은협업농장과 함께 학습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 장소로는 흥동면의 '흥동밖매향도서관'과 장곡면의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젊은협업농장은 농촌의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흥동면 '생각실천창작소', 장곡면 '청년농부 작업장 온'과 협력하여 창업 인큐베이팅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물론 젊은협업농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유능한 리더와 청년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없었다면 쉽사리 될 일은 아니었다. 땅과 시설하우스를 임대해주고 젊은협업농장에서 벌여나가는 일들을 응원했던 도산리 이장과 마을 주민들, 젊은협업농장이 자리 잡기까지 농장의 생산물을

대부분 사들였던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다양한 교육 강좌를 기획하는 데 동참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한 여러 지역사회 조직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수 많은 사람들이 젊은협업농장의 일에 협력했다.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사회의 품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젊은협업농장에서 인연을 맺은 청년들이 모두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로 돌아가기도 하고, 농촌에서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하기도 한다. 젊은협업농장은 청년 농민을 키워내는 농장에서 청년이 농촌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농장으로 성장하였다. 젊은협업농장의 시도와 역할은 우리나라 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 사이의 관계를 정민철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15년 흥성군에서 농축산물 판매로 얻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67.3%를 차지합니다. 3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90%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 농장 청년들이 독립하더라도 도달 가능한 수준이 딱 그 정도일 것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농촌이 지속가능하려면 3000만원 미만인 농가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농가들은 적정 수준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 활동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이예요. 이 층이 유지되고 넓어져야 농촌이 유지될 겁니다. 그 이상에 속하는 농가가 많아지면 농업은 살아남아도 농촌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농업 소득이 적다보니 이런 농가들은 농업 말고 농장이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에 관심을 둡니다. 농촌에서 진행되는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역할을 하는 농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이런 영역으로 진입하면 농촌에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탈출구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죠.”

행복농장: 정신질환자에게 행복을 주는 따뜻한 농장

농촌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내에서 돌보았다. 농장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돈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 가면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가 전문 사회복지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을 산업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서 농업과 지역사회의 일이 분리된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옛날 농촌은 농사로 자급자족 하였고 농사일이 곧 지역사회 활동이었다. 그러나 요즘 농촌에서 농업은 생계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농장에서 그냥 고용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이 농촌에서 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홍성군 장곡면에 있는 ‘행복농장’에서 찾을 수 있다. 행복농장은 소외된 사람들을 농업을 통해서 품고자 했던 것이다.

행복농장은 1,200평 남짓한 농지에 조성한 시설하우스 5동에서 허브, 꽃, 채소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주요 생산 품목을 1년 내내 생산한다면 2017년 행복농장의 농업 소득은 대략 3천만원이다. 2016년에 2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장은 성장 중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간 농민 2명이 시설하우스 5동에서 얻는 소득이 4천만~5천만원이기 때문에 농장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직 수익도 충분치 않은 행복농장이 무슨 연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품을 생각을 했을까? 그 까닭을 알려면 행복농장의 설립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발단은 충청남도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이하, 센터)에 있다. 센터는 재활 치료 목적으로 지역의 정신질환자들을 농장 활동에 참여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2014년에 홍성군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 ‘행복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농장을 운영하였다. 센터 직원 1명을 농장에 배치하고 정신질환자 5명과 함께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센터에서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대안으로 농업인 2~3명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들을 고용하여 돌보는 방식이 관철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이 농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2015년, 젊은협업농장 맞은편에 ‘행복농장’이란 이름을 그대로 써서 농장을 설립했다. 2016년에는 이런 취지에 뜻을 같이한 11명이 600만원을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장곡면에 행복농장이 자리를 잡을 때부터 농장의 실무 이사를 맡고 있는 최정선 씨는 행복농장을 소개하는 팸플릿에서 농장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행복농장을 설립하는 데 센터와 젊은협업농장의 역할이 컸다. 그렇다보니 농장에서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활동은 두 조직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행복농장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자연구시’ 프로그램이다. 2014년까지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행복농장이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어 운영한다. 매년 센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1500만~2000만원의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충남지역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질환자들이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농사일을 배우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일반 자연구시 기초과정’,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기초 과정은 4박 5일 간 진행하며, 1년에 2~3회 실시하고 매회 10~12명이 참여한다. 2017년에는 2회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센터에서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기초 과정 동안 참여자들은 센터 직원들과 행복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펜션에서 숙박하고 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에 두 개



조로 나뉘어서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화수농원', '옥계열매농장' 등 인근 농장에서 행복농장과 젊은협업농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농업 활동에도 참여한다. 여러 농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양한 작물을 다뤄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근 농장들이 협력하여 서로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다. 센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기초과정이 끝나면 기초과정 참가자 중 희망자 2~4명을 선정하여 심화과정을 2~3주에 걸쳐 진행한다. 심화과정 참여자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복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일상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센터에서

담당한다. 심화과정 참여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2~3주 간 머물 곳이 없다는 점이다. 2016년에 심화과정을 진행할 때는 장곡면 도산리 이장님이 마련해 준 가옥에서 지냈고, 이장님의 사모님이 손수 참여자들의 식사를 챙겨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2017년에는 센터에서 지원할 여력이 안 되고 기초과정 참여자 중 적당한 대상자가 없어 심화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

행복농장에서 실시하는 자연구시 프로그램 개요

▶ 자연구시 프로그램 :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구분	교육대상	숙박	기간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목표
자연구시	1.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복지관 또는 기관 소속의 그룹 별 진행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1회 / 매주			10~15명	외부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3. 일반 자연구시	만성 정신 질환자	4박 5일	3회 / 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기관에 소속된 10명 선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4. 일반 자연구시 심화 과정	만성 정신 질환자	3주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중 선발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이수자 중 평가							
5. 자연구시 인턴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 활동과 지역 활동 참여	회원의 의지, 농장평가,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이렇게 심화과정까지 마친 참여자 중 1~2명이 행복농장에 인턴으로 고용되었는데, 이들은 인근의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농장에서 일하고 돌아간다. 인턴을 고용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농장에 보조한다. 최초 6개월은 인건비의 80%를, 그 다음 6개월은 60%를 지원한 후 인턴 과정이 끝나면 일부는 정식으로 농장에 고용되어 일한다. 현재 행복농장에 정식으로 고용된 만성 정신질환자는 1명이다. 자연구시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인턴을 거쳐 2년 넘게 농장에서 일한 A씨는 2017년 3월 정식으로 고용되었다. A씨는 일반인 작업량의 절반

수준까지 소화한다. 원래 사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농장으로 출퇴근 하였는데, 2017년 4월부터 젊은협업농장 청년들이 지내는 집에서 임시로 거주하다 최근에는 독립하여 인근 광천읍 아파트에서 지낸다.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은 농업 체험 활동의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로그램과 매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여성 노숙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진 소방관과 경찰관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시간 정도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주변 명소나 관광지로나들이를 간다. 센터에서 소개해주거나 행복농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연결해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행복농장의 농업 생산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려고 일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다.

자연구시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의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하여 장애 아동 가족들과 텃밭을 경작하는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나사렛대학교와 제휴하여 치유농업 스텝 양성 2박 3일 과정을 3회 실시하고, 서울의 미혼모 교육 시설의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2박 3일 프로그램을 6회 운영하기도 했다.

행복농장은 장곡면에 자리를 잡은 이후로 농장의 농업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최정선씨는 농업 활동에 집중하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이 분리되지 않아 농업 생산에 집중할 수 없고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를 관리하는 것도 농장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센터나 관련 기관 직원들이 참여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농장 직원으로 배치되어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 농장 형편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농장을 함께 운영할 일반인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행복농장이 출발할 때부터 농장의 실무이사를 맡고 있는 최정선 씨를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다 중간에 그만두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아닌 이상 일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농업 생산도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최정선씨는 수목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초·중학교 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10년 간 주민 교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농장의 일들을 잘 꾸려올 수 있었다. 현재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행복농장의 실무이사인 최정선 씨와 최근에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고 행복농장으로 넘어온 청년 1명이 전부다.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관찮은 월급을 주면서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형편인데다, 뜻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만성 정신질환자를 고용하여 농업 생산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가도 넉넉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농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최정선씨는 행복농장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효과에 있다고 이야기 한다. 농장에서 일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정신질환 증상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농장을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치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각종 작업을 스스로 해내면서 자존감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 농장에 왔을 때는 경계하고 눈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님이 오면 커피도 타주고 인사도 잘한다고 한다. 그리고 행복농장이 문을 닫지 않고 지금껏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젊은협업농장은 정신질환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행복농장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고, 인근 농장들은 행복농장과 협력하여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왔다. 충남 광역 정신 건강 복지 센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의 파트너로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주었고, 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였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 기술지원 시범 사업’으로 행복농장에 9천만 원을 지원해주어 농장은 지원받은 돈으로 농기계 구입, 비닐하우스 보수, 부엌 및 휴게 공간 설치 등 농장의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보태었다. 행복농장은 홍성유기농조합법인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의 대부분을 출하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농업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행복농장이 위치한 도산리 주민들은 행복농장에서 하는 일을 지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있다.

행복농장은 농업을 매개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다. 아직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실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고령화, 귀농·귀촌, 다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농촌 지역에 양산되는 사회적 배제에 농업을 통해 대응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해 연구원

